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 활용 방법

2027 서울 WYD와 젊은이 사목



WYD는 World Youth Day '세계 젊은이의 날' 또는 '세계청년대회'의 약자로, 교황님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념하고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종교적이면서 문화적인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85년 '세계 젊은이의 날'을 제정 하시면서 각 지역 교회에 젊은이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마련하게 하셨고, 매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후 전 세계 모든 젊은이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친교와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1986년에 첫 WYD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3 리스본 WYD' 파견 미사 때에, 다음 2027년 WYD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24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말씀을 '2027 서울 WYD'의 주제 성구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구는 해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교황님께서 발표하시는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문의 주제 성구들과 연결됩니다.

제39차(2024-5년)	"주님께 희망을 둔 이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이사 40,31 참조
제40차(2025-6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요한 15,27
제41차(2026-7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모든 지역 교회는 각 해에 주제 성구를 중심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2027 서울 WYD'도 이러한 연속성 안에서 진행됩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와 교황님과 함께 순례하고 친교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WYD는 단순히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WYD는 그 시작부터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하여 마련한 순례의 긴 여정이며, 젊은이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의 목적

본 워크북은 ‘2027 서울 WYD’로 향하는 여정 안에서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WYD는 단순한 국제 행사나 사목적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그분과 맺게 되는 친교 안에서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젊은이들은 WYD를 통해 체험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바탕으로 온 세상에 기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WYD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속한 교구 및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워크북에 따라 나눔을 함께 한 젊은이들은 오늘날 자신에게 필요한 복음적 가치를 식별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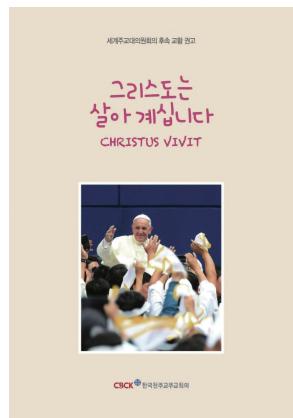
워크북의 구성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돋기 위해 마련된 본 워크북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함께 나눔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문헌은 2018년 10월 바티칸에서 개최된 젊은이들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발표하신 권고입니다.

워크북 1과부터 3과에서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기 전에 나와 너, 그리고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나눔을 진행합니다.

4과부터 8과에서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성찰한 후, ‘성령 안에서의 대화’에 따라 나눔을 진행합니다.

9과에서는 과정 전체를 마무리하며 ‘2027 서울 WYD’의 주제 성구를 묵상하고, WYD를 어떻게 준비하여 기쁘게 참여할 것인지 나눕니다.



워크북의 교과 과정

구분	제목	핵심 주제
1과	여행을 떠나며 – 나 너 그리고 우리	나와 우리, 첫 만남
2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하느님과 나, 부르심과 신앙생활
3과	길 위에 선 나와 너, 그리고 하느님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
4과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2장 읽기	젊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5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4장 읽기	젊은이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극복 방법 예수님과 맺는 우정을 통한 극복
6과	젊음의 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5-6장 읽기	참된 젊음의 모습 - 실패, 도움, 성장
7과	함께 걷는 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7장 읽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 - 다가감, 열린 마음, 그리고 참된 봉사의 의미
8과	부르심과 식별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8-9장 읽기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힘 - 삶의 목표, 기도, 식별
9과	가자! 갈릴래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젊은이의 용기 WYD를 향하여

각 단계의 핵심 방법론

각 과의 영적 여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안하신 시노드적 만남인 ‘엠마오 여정’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7항을 기본틀로 삼았습니다. 이 ‘엠마오 여정’에 따라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성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 관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며 물으십니다.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루카 24,17 그러자 제자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단순히 사건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느낀 슬픔과 좌절, 복잡한 감정과 함께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 상세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인내로이 들으십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정독하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청년들이 고백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각 과에 제시된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질문들을 각자의 경험과 연관 지어 성찰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경험에 녹아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의 단계’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사목 현장」 1항를 깊이 관찰하고 이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세상적인 것들과 선입견, 고정 관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삶의 여러 경험을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 경청과 식별

엠마오에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한 일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이처럼 ‘경청과 식별의 단계’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이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젊은이 5~6명 정도가 모여 함께 진행합니다. 모임은 ‘성령 안에서의 대화’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살아 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불어 다른 젊은이들을 하느님의 귀한 존재로 만나며,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시노드적 교회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에서 제시한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으면서 발견한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나눕니다. 또는 해당 과에서 제시된 질문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② 다른 이들의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첫 번째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③ 참여자들의 나눔을 들으며 어떤 새로운 울림이 있었는지 나눕니다. 이는 모임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고 계셨는지 느끼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④ 나눔이 끝나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두 번째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⑤ 침묵의 기도가 끝나면, 앞의 ③번 나눔에서 얻게 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합니다. 이를 복음적으로 식별한 뒤,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각 과에 제시된 질문을 참고하여 가치의 식별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나눔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됨’을 드러내기 위한 작은 공동체 미션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 : 일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불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루카 24,29}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를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머물며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자, 제자들은 그제야 “눈이 열려”^{루카 24,31}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을 때 마음이 타오르고 정신이 맑아진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므로 ‘일치의 단계’는 무엇보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일치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청년 미사 전에 나눔을 하고 성체성사를 통해 다 함께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신 후에는 모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를 실천에 옮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모임 후에 미사를 드릴 수 없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다 함께 성체 조배를 하거나 각 과에 제시된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번째 단계 : 파견

엠마오의 두 제자는 스승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몰랐던 때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엠마오로 향했

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곧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도록’ 회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곧바로 일어나” 루카 24,33 예수님을 만난 곳이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체험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를 이루어 복음의 참된 가치와 그 실천 방법을 깨닫게 된 젊은이들은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모임 이후, 나눔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해당 과의 핵심 주제를 심화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각자 읽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개인적 사명과 공동체적 사명을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파견의 단계’입니다.

‘엠마오 여정’을 따르는 위의 각 단계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2027 서울 WYD’로 향하는 모든 젊은이를 ‘세상을 이기는 용기 가득한 선교사’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개인적 준비

관찰의 단계

① 읽기

해당 과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정독하기



읽어 보아요

② 관찰하기

정독한 문헌 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과

각 과에 제시된 질문들을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기



생각해 보아요

공동체와 함께

경청과 식별의 단계 [성령 안에서의 대화] 약 60분 소요

①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 16쪽



성령 안에서의 대화

② 말하고 듣기 <나눔 1> 1명당 3~5분

삶의 경험에 비추어 와닿은 내용 또는 해당 과에 제시된 질문에 따른 생각 나누기

③ 성령께 귀 기울이기 <침묵과 기도 1>

다른 참가자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하기

④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 주기 <나눔 2> 1명당 3~5분

나눔 안에서 울림이 있었던 것과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자신과 공동체 안에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나누기

⑤ 성령께 귀 기울이기 <침묵과 기도 2>

모든 나눔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하기

⑥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 <나눔 3>

함께 발견한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식별해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기

공동체의 ‘하나 됨’을 드러내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기



함께 해 보아요

일치의 단계

① 다 함께 성체 조배를 하거나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바치기

또는 미사 안에서

성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기



성체 안에서의 일치

삶의 자리에서

파견의 단계

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해당 과의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회 가르침 읽기

② 실천하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맡기신

개인적 사명과 공동체적 사명을 실천하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